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우술임 수산나 (1803-1846)



경기도 양주(楊洲)에서 태어난 우술임은 15세 때 인천의 한 교우와 혼인 후 배우자의 권면으로 입교하였다. 1828년 체포되었을 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을 뻔하였으나 해산이 임박하여 두 달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을 여의고 1841년에 상경해 교우들의 집에 얹혀살다가 독립해 과부 이간난과 함께 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1846년 5월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었을 때, 김 신부의 집에 있던 여교우들은 이간난의 집을 거쳐 새집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이간난도 그곳으로 함께 피신하였는데, 우술임은 홀로 남아 이간난의 집을 지키다 결국 7월 11일에 체포되었다. 포청에서 매를 많이 맞아 반죽음이 된 그는 9월 20일,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고 44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이정태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7주일 · 조부모와 노인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8(67), 6-7, 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2열왕 4, 42-44

화답송

시편 145(144), 10-11, 15-16, 17-18 (◎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에페 4, 1-6

복음 환호송

루카 7, 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요한 6, 1-15

영성체송

시편 103(102),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헤브론을 차지한 여폰네의 아들 칼렘



헤브론 구시가지

「플랜더스의 개」는 어린 시절 인상 깊게 읽은 동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추운 겨울날 주인공 소년이 그토록 꿈꾸었던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서 내림>을 본 뒤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 자신과 동행한 개를 끌어안은 채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난과 냉혹한 사회 탓에 희망을 빼앗긴 소년의 비극적 삶을 그린 명작입니다. 소년의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플랜더스의 개는 전 주인에게 학대받고 버려졌으나 소년에게 구해져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충성스러움은 45년 동안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노인의 나이에 이르러 그것을 실현시킨 칼렘을 떠올리게 합니다(여호 14,6-15).

칼렘은 히브리어로 ‘개’를 뜻합니다. 사람 이름에 ‘개’를 붙이는 일이 흔치 않고 성경에서 개의 이미지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지만(시편 22,17; 마태 7,6 등), 다른 한편으로 개는 충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고대근동에선 ‘마르둑 신의 개’를 의미하는 [칼비-마르둑]이란 이름도 존재하였습니다.

칼렘은 이집트 탈출 뒤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한 정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열두 지파의 대표로 구성된 정찰대는 가나안 땅이 좋다는 건 확인했으나, 그곳 주민들이 강력한 나팔족이라 전하며 백성들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민수 13,25-33). 칼렘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정복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정찰대의 중론에 휘둘러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고, 이로써 탈출 1세

대는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14,34-35).

그에 비해, 칼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허락받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신명 1,38) 칼렘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민수 14,24; 신명 1,36). 그리고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정복 후 땅의 분배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14—15장)에서 칼렘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가 약속대로 헤브론을 차지했음을 밝히고(14,13) 그를 백성의 모범으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칼렘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진취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무리 하느님의 약속이라도, 믿고 실행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과 백성의 의지가 하나로 만날 때 주님의 약속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칼렘은 장장 45년(14,10)을 기다려 약속의 실현을 이끌어 냈습니다. 에프라임과 므나쎄 지파의 경우에는, 평야 지방의 가나안인들에게 철 병거가 있다며 그곳을 차지하기 꺼려했지만(17,14-18), 당시 여든다섯 살이던 칼렘은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아낙인의 땅도 차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14,11-12).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칼렘은 자기 이름의 의미처럼 무덤까지 주인을 따르는 개의 충직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러한 한결같은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고 백성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⑩ - 재산(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창조된 재화의 보편(공동) 목적과 그 공동 사용의 권리, 모든 재화의 사회적 목적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곧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의 품위 있는 생활과 온전한 발전이라는 기본적 권리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회칙은 열린 세계를 위한 국제 관계의 새로운 네트워크와 세계적 연대와 협력의 윤리를 숙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126-127항).

새로운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후 재앙, 평화 위기, 빈곤 확대처럼 이미 세계화된 심각한 현안들을 개인들 또는 소규모 집단들 사이의 상호 협력과 노력만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들 또는 소규모 집단들 수준에서 이른바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얼마나 자주 또 절실하게 강조되어 왔습니까? 하지만 실효적인 ‘생태 전환’(ecological conversion)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참조).

연대와 협력의 윤리와 관련하여, 회칙 「모든 형제들」은 개인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불공평(inequity)에 대해 재고(再考)하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나라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외채(外債) 상환의 부담이 국가 존립 자체와 그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국제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곧 정의(正義)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음을 말합니다. 정의는 본성상 ‘다른’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품위 있는 생활과 온전한 발전이란 기본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명합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서남아시아 지역의 ‘최저개발국’(최빈국)들이 처한 정세는 국제 사회가 정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세계 시민의 양심과 책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국가들이 이웃 나라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으려면, 대중 또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건전한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찬미받으소서」 169, 179항 참조).

회칙 「모든 형제들」은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 위대한 원리, 곧 품위 있는 생활과 온전한 발전의 권리처럼 보편적이고 침해 불가하며 양도(讓渡) 불가한 인간 존엄에서 유래하는 권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그에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이에게 ‘땅, 주택, 노동의 기회’를 마련해줄 세계의 건설을 열망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땅과 주택과 노동은 우리의 기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하기를 갈망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2560항). ☪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중세는 하느님이 중심인 그리스도교의 전성기로 하늘로 높이 치솟은 고딕 성당들이 건설되고, 내외부는 조각과 회화, 금속 세공품과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유산은 ‘책’입니다. 다수가 문맹이던 때, 책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귀족과 고위 성직자 등 소수 계층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서구에서는 1460년경에야 인쇄술이 발전하는데, 오늘 소개하는 그림은 그 이전인 13세기, 동물의 가죽에 직접 손으로 쓰고 그려서 만든 ‘수서본’(手書本, manuscript)의 일부입니다. 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술적 혁명은 1세기경에 나온 ‘코덱스’(Codex), 즉 ‘사각형의 페이지들을 묶은 책’의 등장입니다. 탁자 위에서 바로 글을 쓰고 원하는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요. 수서본은 이렇게 필경사가 글을 쓰고, 채식사가 정성스레 삽화를 그려 탄생하였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코덱스는 1220~1230년에 제작된 것으로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쓰여있습니다. 주문자는 프랑스의 왕 필립 오귀스트 2세(†1223) 또는 그의 아들인 루이 8세(†1226)로 추정되는데, 실제 소장자는 루이 8세의 부인 블랑쉬 드 카스티유(1188-1252)로 전해집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눈부신 황금색 배경을 이중으로 된 정교한 문양의 장식이 감싸고 있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천상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공간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색을 황금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일에 열중하시는 하느님이 화면 가득 자리해 계십니다. 왼손으로 ‘우주’인 둥근 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거대한 컴퍼스로 무(無)로부터(ex nihilo) 유(有)를 창조하시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오른발은 액자 밖으로 나와 있어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즐빔더러 화면에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는 이중 효과를 냅니다. 채식사는 뛰어난 상상력으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1220~1230년, Codex Vindobonensis 2554, 양피지에 채색, 34.4cm×26cm,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로 태초의 우주를 미생물 아메바와 닮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질서가 가득하던 ‘어느 순간’ 온통 혼돈 상태(chaos)였던 세상에 질서(cosmos)를 부여하셨습니다. 미지의 안개 속에 싸여 있던 ‘한 처음’ 세상이 창조되던 순간입니다. 이 걸작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순간을 참으로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세상 모든 창조물에 고유한 존재 이유와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은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모두’ 소중합니다. 이 세상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이신 하느님께서 지극한 정성과 애정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허리를 굽혀 애쓰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창조물들입니다.

“하느님, 부족하기만 한 저희는 예외 없이 모두 당신의 은혜로운 손길의 결과물임을 망각하고 서로 미워하곤 합니다. 나 자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의 아름다움,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



교구 소식

청소년사목국 통합 카카오톡 채널 오픈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 채널로 초대합니다.

오픈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 기존 UJB어린이사목부·UJB청소년사목부·UJB청년사목부 채널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채널 ▶



제32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안내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꿍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3(금) 19시 ~ 25(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8/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령은 나의 희망

강사 김영철 신부 (전국 및 교구 담당, 4지구장)

문의 010-2127-0032

호평동성당 관리자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마감 8/20(화)까지

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73번길 27 호평동성당 (우 12142)

※ 자세한 사항은 교구 및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시] 정지후 헬레나의 9살 여행

일시 7/27(토)~8/9(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톡 @g_pyeongwha

전신자 성경 읽기 7/28(주일)~8/3(토) : 루카 17,11-37



8/31(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제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8/2(금) 성시간 15시, 미사 16시

성시간 18:30, 미사 19:3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본원 (덕양구 삼막2길16)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일반부: 8/2(금)~4(주일), 경남 산청 성심원

중고등부: 8/6(화)~8(목),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 일정 정정, 선착순 모집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8/9(금)~12(월)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8/15(목)~17(토)

성경완독: 8/23(금)~31(토), 9/27(금)~10/5(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지혜의 샘 8월 피정

성모승천 대축일 피정: 8/5(월)

강사: 손광배 신부,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찬양치유 대피정: 8/14(수)

강사: 손동훈 신부, 서한석 신부, 한영임 회장

일어나 걸어라 피정: 8/26(월)

강사: 박현민 신부, 박효철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5층

문의: 010-3248-9705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8/3(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 (일산서구 원일로 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8/2(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가정선교회 8월 피정 및 미사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8/3(토) 박재찬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8/7(수) 양창우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8/17(토) 한철호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7시

장소: 가톨릭회관 3층, 7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바오로가족협력자회 - 레벤복스 명동성지피정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기념 피정

일시: 8/20(화) 11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내용: 강의, 점심식사, 순례기도, 레크레이션, 미사

강사: 양은철 안드레아 신부, 이해동 라파엘 신부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복스 회원

준비물: 목주, 바오로가족 기도서 / 회비 없음

문의: 02-944-8421, 010-9752-8421

바오로가족협력자회

010-2557-1361 레벤복스

웃는얼굴, 둥근마음

일시: 9/11(수) 15시 ~ 12(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주제: 웃는얼굴, 둥근마음

강사: 류 에프렘 수사

문의: 010-6791-0071 (문자 신청)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추차도포함: 9/11(수)~14(토), 10/5(토)~8(화),

10/27(주일)~30(수)

자연순례: 9/2(월)~4(목), 9/7(토)~9(월),

9/21(토)~23(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 (※ 만 30세 이상)

접수: 9/9(월)~13(금) 인터넷접수, 면접: 11/1(금)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c.or.kr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2025 양업고등학교 입학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기간: 9/2(월)~25(수)

대상: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1(토)~26(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10/10(목)~19(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10/15(화)~26(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8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7(월)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에 (13일)

10/21(월) 산티아고 118km 도보 순례 (12일)

10/23(수) 발칸 3개국, 메주고리에, 헝가리 (12일)

11/21(목)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12/20(금) 이탈리아 일주 (10일, 정기회전 전대상)

문의: 02-319-2533, www.catholictravel.co.kr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의정부교구 관광지 인근 성당 안내



관광지	성당	문의	미사 시간
감악산	신암리 성당	031-862-3455	(주일) 10:30
광릉 수목원	광릉 성당	031-528-4044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16시
광탄 계곡, 마장 호수(출렁 다리), 벽초지 수목원	광탄 성당	031-949-4210	(토) 19시 (주일) 10:30
다산 생태 공원, 다산 유적지, 실학 박물관	마재 성지	031-576-5412	(주일) 09시, 11시
동두천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동두천 성당	031-864-4300	(토) 19시 (주일) 07시, 10시
	송내 성당	031-859-3801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18시
람사르 장항 습지, 아쿠아플라넷 일산, 킨텍스 전시장,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대화마을 성당	031-922-7077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17시
	주엽동 성당	031-921-2301	(토) 18시 (주일) 06시, 09시, 10시, 11시, 18시, 21시
서삼릉, 원당 종마 공원	신원동 성당	02-381-3939	(토) 18시 (주일) 09시, 11시, 16시
서오릉	도래울 성당	031-967-5300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16시
송추(북한산 국립 공원), 일영·장흥 유원지, 장욱진 미술관	송추 성당	031-855-1225	(토) 18시 (주일) 11시
수동 계곡, 축령산 자연 휴양림	수동 성당	031-594-6461	(토) 16시 (주일) 08시, 11시, 17시
심학산 둘레길, 파주 출판 단지	교하 성당	031-948-9064	(토) 15시, 18시 (주일) 06시, 09시, 11시, 18시
양주 향교	양주 순교 성지	031-841-1866	(주일) 11시
연천 호로고루	적성 성당	031-959-6021	(토) 19:30 (주일) 11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 헤이리 예술 마을	참회와 속죄의 성당	031-941-3159	(토) 16시 (주일) 07시, 11시, 16시
임진각 평화 누리 공원	문산 성당	031-953-3950	(토) 18시 (주일) 09시, 11시, 18시
임진강, 재인 폭포	연천 성당	031-834-0188	(주일) 11시
	전곡 성당	031-832-1987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파주 이이 유적지	법원리 성당	031-958-0811	(주일) 07시, 11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영장·캠핑장	녹양동 성당	031-876-2266	(주일) 06시, 09시, 11시, 17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031-840-0018	(주일) 11시
행주산성 역사 공원	행주 성당	031-974-1728	(토) 19시 (주일) 09시, 11시

대영광송 (Gloria)

주일과 축일 또는 대축일 미사에서는 자비송(Kyrie) 다음 대영광송을 바칩니다. 때로는 두 기도가 순차적으로 별다른 구별 없이 바쳐지는 탓에 마치 비슷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자비송이 자신의 부족함을 뉘우치며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라면, 대영광송은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찬미가입니다.

대영광송은 성경에 나오는 찬가를 제외하고 교회가 만들어 바친 가장 오래된 찬미가 중 하나입니다. 밀라노 칙령(313년)으로 그리스도교에 자유가 주어진 이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찬미가와 기도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것은 정통 교리를 담고 있지 않아 교부들과 공의회로부터 견책을 받았습다. 심지어 제4차 톨레도 교회 회의(633년)에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찬미가들을 폐기하였는데, 그때도 대영광송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보존되었습니다.

대(大)영광송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바치는 ‘영광송’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의 찬미가’(hymnus angelicus) ‘천사들의 찬미’(laus angelorum) ‘노래하는 천사의 찬미’(laus angeli cum carmin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대영광송의 첫 구절이 예수님 탄생 때 목자들이 들은 천사들의 노래(루카 2,14)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대영광송은 여러 전통의 찬가들이 시간을 거듭하며 하나로 모여져 완성된 찬미가입니다. 하지만 그 가락(멜로디)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형태가 단순한 밀라노 대영광송으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로마 성가집」(Graduale Romanum)에 실려 있는 열다섯 번째 대영광송인데, 이는 시편을 읊듯이 바치는 모자라빅(Mozarabic) 전례의 ‘주님의 기도’ 곡조와 유사합니다.

「미사경본 총지침」에선 대영광송이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된 고귀한 찬미가”(53항)로서 그 문구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노래하고, 그다음은 모두 함께 또는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합니다(성가대 홀로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로 바치지 않을 경우, 모두 함께 또는 양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하지만, 그 성격상 기쁨과 찬양의 성격이 드러나도록 노래로 바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매주 바치는 대영광송의 의미를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주님께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미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